

내 삶의 역사와 함께한 책들

피난 때 산 책이 대부분 ... 심리학의 '성경' 같이 소중한

김재은

이화여대 교수 · 교육심리학

당산동에 출판박물관을 운영하는 피짜 출판인이 한 분 있다.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이다. 필자와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20여년 전부터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 분에게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고전'에 대해 자랑을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김회장 말씀이 "선생님 그런 자랑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하길래, "그렇리가 있을라고"한 적이 있다. 내가 아끼는 책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하겠다.

내가 아낀다는 그 책들은 글썄, 조사는 안해봤지만 한국에서 같은 류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나 있어도 한두분 정도가 아닐까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나의 젊은 시절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애착이 간다.

피난 때 노점상에서 구입

우선 그것이 무슨 책인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하고, 내가 죽은 후에 그 책의 행방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김종규 회장이 탐을 내셔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렵게 살고 공부하던 시절, 어쩌다 돈이 생기면 헌책방에 가 뒤져서 책을 샀다. 분트의 《심리학의 기초》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입문》은 이들을 꼬박 굶고 산 책들이다. 그렇게 산 책은 표지를 시시껄렁하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신문지 같은 것으로 싸서 보곤 했다.

을 지상으로 밝혀두는 바이다. 책의 목록부터 말해보겠다.

- Wilhelm Wundt의 《Grundriss der Psychologie》 (Alfred Kröher, 1922년)
- Edward Lee Thorndike의 《Educational Psychology》 (Columbia University 출판부, 1910년)
- Sigmund Freud의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Leipzig, Vienna 등에서 1922년에 동시출간) · W.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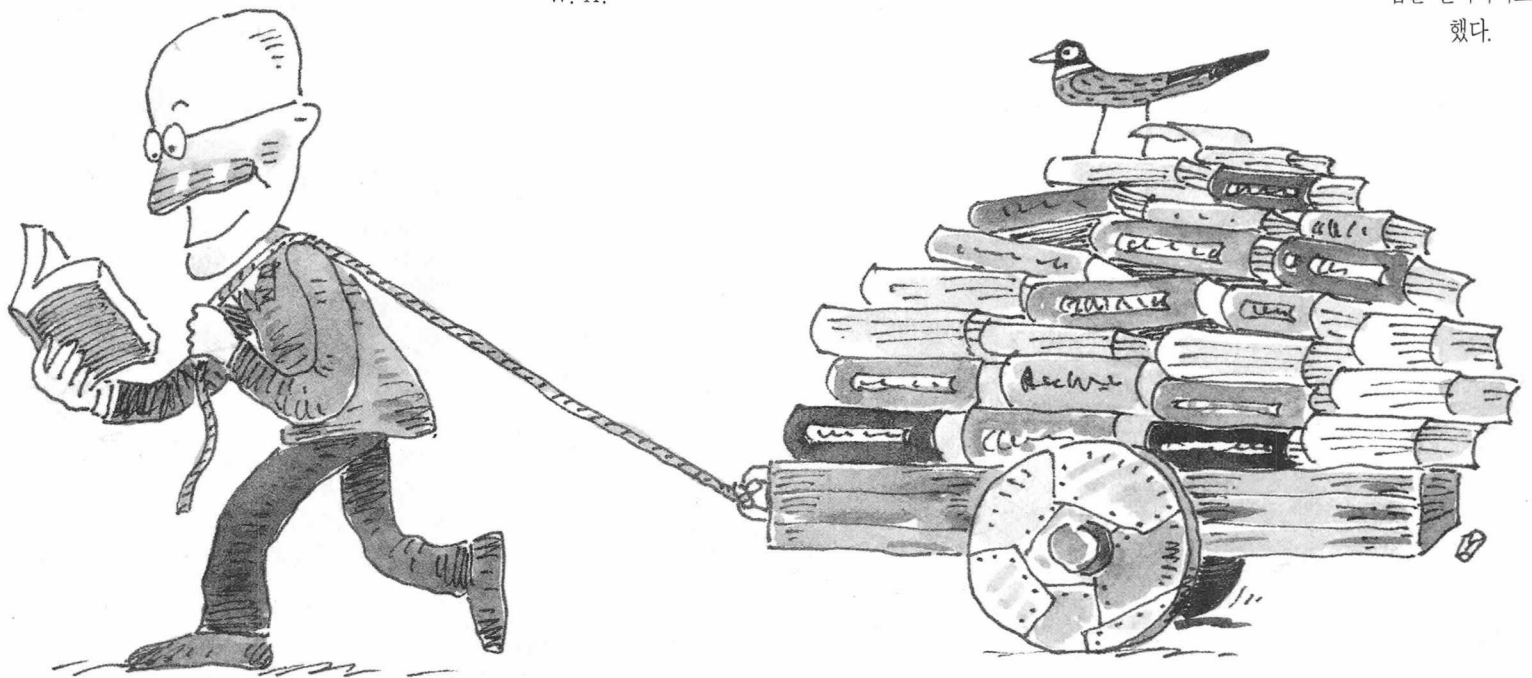
- Kilpatrick의 《Foundations of Method》 (The Macmillan, 1925년)
 - Lewis M Terman과 M. A. Merrill의 《Measuring Intelligence》 (Stanford University 출판부, 1937년)
 - Karl Jaspers의 《Psychologie der Weltanschauung》 (1925년, Berlin에서 출판)
 - S. R. Wells라는 학자가 쓴 《New Physiognomy - Signs of Character》 (London의 Fowler & Co.1866년)
 - Florence Goodenough의 《Developmental Psychology》 (The Macmillan, 1931년)
- 이밖에도 고전에 속하는 책이 10여권 더 있으나 이 정도로 줄이겠다. 이 책은 대부분 1951년에서 1953년 사이에 부산에서 구입한 것들로 부산 미국 문화원이 있는 대청동과 국제시장 언저리의 노점상에서 산 것들이다. 나는 1950년 6월초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들어갔는데, 실은 문리대 심리학과에 시험을 쳐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때만해도 심리학을 공부해서는 취직을 할 수가 없었다.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사범학교 교육학선생을 할 수가 있었다. 그때만해도 각 시도에 2개교씩의 사범학교가 있었고 모교에 갈 수도 있어 취직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들 굶고 책 사기도

그런 이유로 사범대학엘 들어갔으나 심리학에 대한 호기심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입학하자 2주만에 6.25전쟁이 터졌다. 필자는 피난을 못하고 서울에 남아서 숨어 있다가 7월13일 새벽에 서울을 탈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대구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대구에서 전신연합대학을 1년 다니고 51년에 부산본교에 가서 53년 9월 서울이 수복할 때까지 부산의 구덕산 밑 가교에서 공부를 하였다. 이들 책은 모두 이때에 구입했다.

부산에 있는 동안은 범일동에 있던 1060부대라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보급부대의 문관으로 일했다.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용돈도 얻어쓰고 있었으며, 간혹 고등학생 영어 과외공부를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 경찰병원의 간호사로 계시던 어머니 고향 친구분에게 가서 직원을 가장하고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3천2백여명의 직원을 둔 출판사?

이만한 출판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직원 3~4명의
대형출판사가 수도룩합니다.

소수정예로 잘팔리는 책, 좋은책 만들수 있다면
그것이 출판천국입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눠보십시오.

한국프리랜서그룹이 3천2백여명의

전문프리랜서를 동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출판관련대행 및 전문인력서비스

- 집필** 자서전, 기업사사, 경영서, 전문서, 사보, 잡지원고등
- 윤문** 번역서등 각종 출판물 리라이팅
- 번역** 문학, 기술, 사회, 경영, 컴퓨터, 정보통신분야등
- 교정** 문학물, 편집물, 사전, 참고서, 학술서등 교정교열
- 편집** 단행본, 잡지, 사보, 기획물, 임시물등
- 디자인** 표지디자인, 포장디자인, 만화, 일러스트, 기업CI 및 카달록등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등 각종 C.G.작업.

Since 1991
(주)한국프리랜서그룹

KOREA FREELANCER BANK CO.,LT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1105호
TEL: (02)784-4447(대) FAX: (02)784-4404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535-6 유성현대리조텔 1101호
TEL: (042)823-7248 FAX: (042)823-2012

한국프리랜서 그룹은 1991년설립된 전문업대행및 전문인력서비스회사로서 3천2백여명의 프리랜서가
현실적비용으로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숙소를 옮겨다니면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던 때라, 식사라고 제대로 편안히 앉아서 해본 일이 없다. 대학 3학년이 되어서야 선친께서 대구 동촌의 비행장 건축공사를 맡아한 덕분에 제법 돈을 버셔서 가끔 생활비를 얻어쓰기도 하고, 방학 때 집에 가면 군부대 물자를 불하받아서 팔거나 부대의 허드렛일을 맡아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공부하던 시절, 어쩌다 돈이 생기면 헌책가게에 가서 뒤져서 얻은 책들이 앞에 적은 것들이다.

이 책 중 분트의 《심리학기초》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입문》은 이들 굵고 산 책들이다. 그때만 해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서울서 피난을 내려오지 못해서 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사면 표지를 아주 시시껄렁한 책처럼 보이게 하려고 신문지 같은 것으로 싸서 보곤했다. 혹시 친구들이 빌려달라거나 빌려가서 훼손시키거나 안들려줄까봐 그랬다. 내 나이 스물 한두살, 대학 2,3학년 무렵인데, 책에는 구입한 날짜가 내 친필 사인으로 찍어 있다. '2nd Feb. 1951' 식으로.

이중 일부는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고 일부는 교육학에 관련된 책인데, 모두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출판된 책들이며, 지금은 심리학사나 교육사에서 중요한 고전들이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독일어를 2년 배운 덕분에 사전 찾아가면서 읽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지금 들춰보아도 그때의 향학열을 짐작할 수가 있다.

교육·심리학의 '교본' 같은 책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을 하다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었는데, 대학에서 우연스럽게도 '심리학사'를 가르치게 되었다. 1950년도에 내가 읽었던 책의 흔적을 학생들에게 선보이면서, 그 중 몇 문장은 복사해서 강독을 하곤 했다.

앞의 리스트에서 빠진 책 몇권은 역사적 고전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 루소의 《에밀》은 지금도 내 연구실에 갖다놓고 읽고 있다.

분트의 《심리학 기초》는 1960년대 까지만해도 심리학교과서의 교본이라 할 만큼 50여년 동안 영향을 끼쳤다. 분트의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양의 연구업적은 동시대 학자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방대하였다.

또 프로이트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정신분석학 입문》은 나에게 있어서 심리학의 성경과 같은 것이었다. 40년간 여러번 통독을 했으나 아직도 그 진짜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게 임상 사례가 없기 때문일까.

손다이크의 《교육심리학》은 교육심리학이란 이름으로 나온 최초의 교과서인데, 이 책에서 그는 교육심리학의 기본개념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손다이크는 컬럼비아대학의 교수였는데, 은퇴하면서 자기 자리를 아들(Robert Lee Thorndike)에게 물려준 일화도 있다.

킬패트릭은 존 듀이의 제자로서 듀이와 함께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선봉자이다. 킬패트릭의 《방법의 기초》 역시 교육방법의 체계적 연구서로서 모든 교육방법의 교본(敎本)과 같은 책이다.

1937년에 나온 터먼과 메릴의 《지능의 측정》은 20세기의 지능개발을 이끌고 좌우한 지능이론과 측정방법의 대표적 교과서이다. 터먼의 지능이론과 측정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내용의 일부, 절차의 일부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영향력은 1915년 이후 6, 70년동안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굿이너프의 《발달심리학》도 그가 처음으로 붙인 이름이며, 웰즈의 《골상학》은 그 속에 예수의 골상해석까지 들어 있다는 점이 재미있다.

이들 책은 나의 생애와 함께할 개인 역사의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